

동학 편력자 권병덕의 종교 생활과 행적 : 『청암의 일생(淸菴의一生)』을 중심으로

이 원 섭*

目 次

- I. 들어가며
- II. 『청암의 일생』의 내용 구조와 특징
- III. 수련과 교리 강연 활동
 - 1. 주문과 기도 수련
 - 2. 순회 교리 강연
- IV. 교인 변호와 교단 활동
 - 1. 행단리 교인 살해 사건
 - 2. 김연국 석방을 위한 구명 활동
 - 3. 남도교인과 서도교인 간의 대분규
- V. 나가며

I. 들어가며

권병덕(權秉德)은 1868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서 1943년에 생을 마감하기 까지 한국의 개항기와 일제강점기를 살아낸 인물이다. 그간 권병덕이라는 인물을 소개할 때에는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 ‘독립운동가’, ‘천도교인’라는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석사과정

말들이 그를 설명하는 수식으로 붙여졌다.)¹⁾ 이러한 표현들은 지금까지 천도교 지도자로서, 독립운동가로서 삶을 살았던 권병덕의 업적을 기리는 데에는 적절한 명명일 것이다. 실제 권병덕의 삶을 보면, 그는 동학의 2대 교주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이 이끌던 시기에 동학에 입도하여 천도교의 전제관장, 이문관장, 금융관장 등의 요직에서 활동한 교령(敎領)이었고, 천도교의 교주 의암(義菴) 손병희(孫秉熙)를 따라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여 3·1운동 민족대표로서도 이름을 남겼다. 다만 본고에서는 권병덕이라는 인물의 삶 전체가 보여주는, 더욱 주목할 만한 의의가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그가 일평생 동학을 신앙하는 교인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동학을 ‘편력(遍歷)’한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편력’의 사전적 뜻은 2가지다. 하나는 “이곳저곳을 널리 돌아다님”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함”이다.²⁾ 보통 후자의 의미로서 남성, 여성이라는 단어가 붙어 ‘남성 편력’, ‘여성 편력’과 같이 사용되는데, 그 인상이 부정적일 때가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편력’이라는 단어에 이러한 가치판단을 들 의도는 없다.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살린다면 여러 동학 교단들을 경험한 그를 가리켜 ‘동학 편력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삶은 ‘편력’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동학 교단들에 행적을 남겼다. 그가 몸담았다고 여겨지는 교단들은 처음 입도한 해월 시대의 동학부터 천도교(天道敎), 시천교(侍天敎), 시천교총부(侍天敎總部), 중앙시천교회본부(中央侍天敎會本部), 수운교(水雲敎), 상제교(上帝敎) 등이다. 천도교 이외의 비주류교단들, 19세기까 아닌 20세기의 동학에 대해 상대적으로 주목이 덜했던 지금까지의 연구 상황³⁾을 염두에 둔다면, 그의 독특한 ‘동학 편력’의 삶은 연구자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권병덕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구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다.

1) 김진봉, 「권병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편력(遍歷)」, 『표준국어대사전』.

3) 최종성은 동학연구가 넘어야 할 과제로서 1) 초기동학과 후기동학의 종합, 2) 주류교단과 비주류교단의 포괄, 3) 신학과 의례학의 조화를 언급한 바가 있다. 최종성, 『동학의 테오프락시』 (서울: 민속원, 2009), 43-63 참조.

권병덕을 중심으로 다뤄진 인물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1959년 오재식의 『민족대표33인전』에 대략적인 그의 일대기가 소개되었고,⁴⁾ 인명 사전이나 백과사전류의 책에서는 그의 천도교인 혹은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만이 간략히 소개되었다.⁵⁾ 2010년대에 들어서야 ‘독립운동가’로서 그를 기리기 위해 일대기를 구성할 수 있는 자료들을 취합함으로써 비로소 그의 전기적 삶이 조명되기에 이른다.⁶⁾ 지금까지 그에 대한 연구가 미미했던 이유는 그의 일대기를 살펴볼 문헌이 없었던 점이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⁷⁾ 1977년 『한국사상』 15집에 「청암 권병덕 선생 자서전(淸菴權秉惠先生自敘傳),⁸⁾이라는 제목으로 영인되어 소개된 자전적 기록이 그의 일대기를 살펴볼 수 있는 1차 문헌이다. 심지어 해당 자료의 전반부만 영인되었기에 권병덕의 1910년 이후의 삶은 많은 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는 형편이었다.

학계에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다행히도 권병덕의 일대기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자료 전체가 현재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⁹⁾ 본고에서는 『청암의 일생』이라는 문헌을 소개하면서 그의 종교 생활과 행적에 주목할 것이다. 먼저 2장에서 『청암의 일생』의 내용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 3장과 4장에서는 『청

4) 오재식, 「청암 권병덕 선생 편」, 『민족대표33인전』 (서울: 동방문화사, 1959), 266-270. 3.1운동 당시 권병덕에 대한 법원의 취조서는 이병현, 『3·1운동비사』 (서울: 개벽사, 1959) 215-224 참조.

5) 『동학 천도교 인명사전』에는 시천교, 중앙시천교회 활동을 언급하고 있지만, 『한국신종교대사전』에는 시천교 교단에서의 활동은 생략되어 있다. 이동초, 「권병덕」, 『동학 천도교 인명사전』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9), 122; 김홍철, 「권병덕」, 『한국신종교대사전』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6), 79.

6) 박결순, 「충북 독립운동가 열전-권병덕」, 『충북일보』 2015.03.29.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390026>; 조규태, 「이달의 독립운동가 - 권병덕」, 공훈전자자료관 2017.3. <https://e-gonghun.mpva.go.kr/user/IndepCrusaderDetail.do?goTocode=20003&mngNo=222>.

7) 박결순은 권병덕의 삶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천도교중앙총부에서도 그에 대한 자료와 행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충북 독립운동가 열전-권병덕」.

8) 한국사상연구회 편저, 「淸菴權秉惠先生自敘傳」, 『한국사상』 15 (1977): 315-409. 청암(淸菴)은 손병희에게 받은 도호이다.

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https://search.i815.or.kr>)에서 『청암의 일생(淸菴의一生)』 원자료 일체를 이미지 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자료번호: 1-010977-000).

암의 일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의 종교 생활과 행적을, 수련과 교리 강연 활동, 교인을 위한 변호 활동, 교단을 위해 헌신했던 구체적 사건 등을 통해서 가늠해 보고자 한다.

II. 『청암의 일생』의 내용 구조와 특징

『청암의 일생(淸菴의一生)』은 『한국사상』 15집에 자료의 일부가 영인본으로 실리며 학계에 소개되었다. 본 자료는 권병덕의 아들 권영창(權寧暢)이 소장하고 있던 권병덕의 미공개 유고로, 권병덕이 노년에 친필로 기록한 국한문 혼용체 문헌으로 추정된다. 물론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된 글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이 집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들이 소장하고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그 내용에 있어서도 권병덕의 구체적인 가정사가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집필했다는 판단은 꽤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해당 자료는 편면 240자의 양면 480자 원고지로 된 기록물이며, 원고지가 190여 장이나 될 정도로 양이 방대하다. 『한국사상』 15집에는 대략 100쪽 분량인 50여 장 정도가 소개되는 것에 그쳤다. 영인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권영창이 책으로 출판할 계획이 있었으나, 모종의 이유로 출판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자료는 2022년 현재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권영창이 소장했던 권병덕 관련 자료들이 권병덕의 증손자 며느리인 정연이에게 건네졌다가 2004년 독립기념관에 기증된 것으로 확인된다.¹⁰⁾

『한국사상』에서 밝힌 권영창의 전언에 따르면, 원고에 번호를 붙이지 않아 순서가 뒤바뀌어졌다고 했는데,¹¹⁾ 현재 독립기념관에 소장된 자료에는 원고지마다 번호가 붙여져 있다. 추측컨대 그가 원고를 정리하면서 추후에 번호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소장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여전히 순서가 뒤섞여 있는 부

1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의 기증자료 검색에 따르면, 348점이 되는 권병덕 관련 자료들이 2004년에 정연이 씨를 통해 기증되었다.

11) 한국사상연구회 편저, 『청암권병덕선생자서전』, 315.

분들이 많아서 자료를 읽는 데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겉표지에는 『淸菴의一生』이라고 적혀 있지만, 글의 구성은 부제에 따라 크게 3편으로 나뉜다.

| 표제 | 부제 | 원고지 번호 ¹²⁾ | 내용 | 비고 |
|-------------------|--------------------------|--------------------------|-----------------------------|-------------------|
| 청암의 일생 (淸菴의一生) | 청암 권병덕의 세계 (淸菴權秉惠의世系) | 1-9 | 안동 권씨 1~34세손까지 기록. | |
| | 청암 권병덕의 연보 (淸菴權秉惠的年譜) | 10-18 | 연도별 약력을 정리함. 1942년까지 기록. | |
| | 청암 권병덕의 일생 (淸菴權秉惠의一生) | 19-67 | 1868~1909년 기록. | 『한국사상』 15집 영인. |
| | | 68-189 | 1909~1935년 기록. | |

표 1 『청암의 일생』의 내용 구성

「청암 권병덕의 세계」에서는 안동 권씨의 시조인 행(幸)에서부터 권병덕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다. 안동 권씨 대동세보의 기록과 비교했을 때, 권병덕에게 이르기까지 세손들의 이름은 정확히 일치한다.¹³⁾ 다만, 자손에 대한 기록은 조금 상이했다. 대동세보에는 권병덕의 아들로 영창만 기록돼 있지만, 본 자료에는 권병덕의 동생 병환(秉煥)의 아들인 영희(寧熹)가 권병덕의 양자로 들어가 있다.¹⁴⁾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권병덕의 자녀들이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 「청암 권병덕의 연보」에서는 연도별로 권병덕의 약력을 소개한다. 기록된 약력은 가족의 결혼과 장례, 자녀 출생과 같은 가정사나 교단 직책의 임명과 사면이 주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방대한 분량인 「청암 권병덕의 일생」에서는 연

12) 본고에서 『청암의 일생』을 인용할 때에는 임의로 페이지의 숫자를 붙이기보다는 문헌에 표시되어 있는 원고지 번호로 표시하였다.

13) 권병덕은 안동 권씨 10세대파의 종파 중 부정공파로 10~25세손까지는 『한글관전산대동세보2021』 1권의 855-857쪽, 870쪽, 872-873쪽에서 확인되며, 25~34세손까지는 『한글관전산대동세보2021』 27권 500-502쪽, 517-519쪽에서 확인된다.

14) 『청암의 일생』, 9.

보에 기록된 약력들을 큰 줄기로 하여 구체적인 인생사를 연대순으로 서술하고 있다. 기록된 시기는 1868년 출생부터 1935년까지이다. 연보는 1868년부터 1942년까지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 권병덕 사후에 연보의 내용을 가필한 사람이 있거나, 1935년 이후에 「청암 권병덕의 일생」에 대한 원고 일부가 누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사상』에 영인된 부분인 원고지 16번부터 67번까지는 글의 순서가 맞으나¹⁵⁾, 영인되지 않은 68번부터 189번까지는 순서가 다소 뒤섞여 있기에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¹⁶⁾

『청암의 일생』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병덕의 가계와 생업과 관련된 일상사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권병덕의 부모와 자식, 아내의 생몰년도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전해준다. 권병덕은 부친 권문영(權文永)과 고령 신씨 신문화(新聞華)의 아들로 출생했고, 부친은 1901년에 일찍 여의었으나, 모친은 1940년까지 장수하였다.¹⁷⁾ 1883년에 원주 원씨 부인과 결혼했으며, 1901년에 일찍 처상(妻喪)을 당했다.¹⁸⁾ 1902년에 전주 이씨 부인과 재취하였고, 부인이 막둥이를 출생한 1925년까지는 적어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¹⁹⁾ 권병덕과 원씨 부인 사이에서는 1녀가 태어났는데 이름은 권학(權學)(1891-1913)이며, 권병덕과 이씨 부인 사이에서는 4남 1녀가 태어났고, 이름은 을룡(乙龍)(1905-1906), 하산(河山)(1908-1911), 영규(寧圭)(1911-1925), 영창(寧暢)(1923-?), 영갑(寧甲)(1925-1935)이다.²⁰⁾ 현대까지 살

15) 한국사상연구회 편저, 「청암권병덕선생사서전」, 315-409. 다만, 331쪽(원고지 27번 앞면)은 두 원고지가 이어 붙여져 있는데, 순서상으로는 이어 붙여진 그 사이에 원고지 129-132번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16) 일례로 권병덕이 중앙시천교회본부를 설립하면서 반포한 「성명서」 내용을 『중앙시천교회중보』에 실린 「성명서」와 비교하여 순서를 정리했을 때, 원고지 번호는 115, 118, 124, 125, 135, 136이다.

17) 『청암의 일생』, 8, 12, 18.

18) 『청암의 일생』, 11, 12.

19) 『청암의 일생』, 12, 180.

20) 『청암의 일생』, 23, 50, 51, 57, 61, 62, 76, 81, 176, 179, 180, 189. 『청암의 일생』에 집약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고, 연대기 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종합하면 위에서 언급한 생몰년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아있었던 영창을 제외하면, 자녀들을 대부분 유소년기 때에 여의었기 때문에 1920년 전후로 가정사로 인한 슬픔이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1912년에 양자로 입양한 동생 병환의 아들 영희(寧熹)(1897-1924)도 오래 살지 못했다.²¹⁾ 권병덕의 가계 외에도 본 자료를 통해서 연초 장사, 약방 사업, 자동차 사업 등 경제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했던 그의 생업 또한 확인할 수 있다.²²⁾

둘째, 자신이 직접 실천한 종교 생활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주문 송독과 기도 수련 등 권병덕이 직접 실천했던 수도 생활을 기록하고 있어 눈에 띈다. 또한 교단에서 순독(巡督)으로 임명되어 각 지방을 돌아다닐 때면, 이동한 장소마다 교인을 회집하여 교리를 강연하였고, 이렇게 순회한 일정들을 보고하고 있다. 동학의 수도와 교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 권병덕의 종교적 실천 양상과 연결되어 실제적인 수도의 모습을 사실성 있게 전달해 준다. 이는 3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한 인물의 시선에 담긴 교단사를 확인할 수 있다. 권병덕의 친필 기록이라는 점에서, 『청암의 일생』은 결국 권병덕이 살아낸 동학 교단사를 보여준다. 1901년 6월에 구암(龜菴) 김연국(金演局)이 투옥되어 3년간 옥고를 치렀는데, 그가 김연국의 옥바라지를 한 것이 그의 삶에서는 특기할 만한 일이었다. 의병으로 오인되어 관군에게 살해당한 교인 21명에 대한 변호 활동도 그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1915년 시천교총부에서 분립하여 중앙시천교회 본부를 세운 다음, 다시 1916년 8월에 천도교로 연합하여 들어가기까지의 일도 매우 자세히 그리고 있다. 이는 그가 교단 운영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동학 교단을 꾸려왔던 경험에 대한 의미가 컸었기 때문일 것이다. 반대로 1920년대에 종교 생활에 관한 기록들은 의도적으로 뺀 흔적²³⁾이 보이는데, 이는 그가 애써 지우려 했던 자기 삶의 기억이기도 하다.²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들

21) 『청암의 일생』, 39, 77. 원래는 이름이 정봉(丁鳳)이었으나 영희로 개명한 후 권병덕에게 입양되었다.

22) 『청암의 일생』, 23, 179, 180, 181, 184.

23) 『청암의 일생』, 17. 상제교에 대한 기록은 그의 약력에서 ‘1928년에 상제교 현기사 정도사 자리를 받았다’는 것만이 발견된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거의 안보이도록 줄을 그어 지워냈다.

은 4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넷째, 윤고문(輪告文), 종문(宗文), 기도문(祈禱文) 등의 글들을 원문 그대로 실고 있어서, 특정한 기록에 대한 원자료의 성격을 가진다. 교단 잡지 휘보에 실렸던 글들이 본 자료에도 여럿이 필사가 되었는데, 서로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²⁵⁾ 전반적인 기록의 사실성을 신뢰한다면, 『청암의 일생』에서만 보존되어 있는 기록들은 원자료의 내용과 거의 동일할 것이라고 여겨도 무방할 것이다. 1915년 시천교총부에서 서도교인과 남도교인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남도교령들이 반포했던 윤고문들은 본 자료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된다.

Ⅲ. 수련과 교리 강연 활동

1. 주문과 기도 수련

권병덕은 18세가 되던 1885년에 임규호(任弼鎬)로부터 동학 입도를 권유받았다. 그는 처음에 ‘동학이 재앙을 없애준다’는 말만 듣고는 입도를 거절했지만,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보고 나서는 임규호의 천거를 통해 동학에 입도하였다.²⁶⁾ 그가 어려서부터 한문 교육을 받았기에 경전을 읽고 깨닫는 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원론적 언설보다는 경전을 읽으며 느꼈던 마음의

24) 권병덕의 연보와 연대기 기록 모두에서 수운교에 대한 언급은 일체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당시의 신문기사에 수운교와 관련하여 권병덕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수운교에서 권병덕이 활동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수운신사 환생이라고 허무맹랑한 괴물」, 『매일신보』 1923.5.31; 「가수운은 1주일 구류에 남의 정신에 놀던 망령된 노인」, 『매일신보』 1923.6.1; 「1주년 맞이의 수운교 기념식」, 『매일신보』 1924.11.12.

25) 일례로 1916년 중앙시천교회본부 교인들이 권병덕과 함께 다시 천도교로 들어가고 나서 참회식을 거행하였는데, 이때 사용된 기도문이 『청암의 일생』과 『천도교회월보』에 모두 실려 있다. 두 내용은 똑같이 일치한다. 『청암의 일생』, 157-158; 「49의 참회」, 『천도교회월보』 78호, 1917.1.15.

26) 『청암의 일생』, 20.

울림에 더 감화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입도한지 1년 뒤인 1886년에 경북 상주 군에서 최시형을 만나 수도하는 방법을 일일이 배웠는데, 주문을 송독하는 것, 청수를 받드는 것을 지극 정성으로 실천하였다.

청암이 도문(道門)에 들어가 해월신사를 진알한 후로 한문공부를 전폐(專廢)하고 주야로 지극한 정성으로 송주(誦呪)하되 매일 주문 3만독을 한도로 삼고 밤새도록 눕지 아니하더니, 어느 밤에 곤함이 밀려와 잠서 베개에 누웠다가 홀연히 집 모퉁이에 불빛이 뚜렷하게 보임으로, 곧 일어나서 가서 본즉 과연 집 모퉁이가 연소하는지라. 집사람에게 소동치 말라고 하고, 천사(天師)께 고한즉 화기가 자멸(自滅)하더라.

이해 6월에 괴질(怪疾)이 과연 크게 일어나 사망이 뒤를 잇거늘, 청암이 신사의 명교하심을 받들어 매일 밤에 청수를 봉(奉)하고 지극 정성으로 축천(祝天)하며 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전파하였더니 정성스런 마음으로 수도하는 도인의 집은 대부분 안전하였고, 혹 병의 기운이 있으면 영부(靈符)를 모사하여 불에 살라 물에 타서 마시니, 그 효과가 영험함이라.²⁷⁾

그는 매일 주문 3만독을 한도로 삼고 송독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였으며, 정신이 몽롱할 때에 다른 곳의 상황을 현장에 있지 않고도 아는 이적을 경험했다. 자신이 천사(天師)께 고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화기가 저절로 소멸됨을 직접 보기도 했다. 괴질이 크게 유행하자, 청수를 받들어 기도했고, 모사한 영부를 불에 사르고 물에 타서 마시는 것에 영험함이 있음을 깨닫기도 했다. 권병덕에게 1886년은 『동경대전』에서 수운 최제우가 경험했던 이적²⁸⁾을 자신이 직접 체험한 시기였다. 성심(誠心)으로 수도한 권병덕은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200여 명을 동학에 입도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²⁹⁾

그는 자신의 수도 생활을 해월 최시형의 명에 따라 성실히 이어간 것으로

27) 『청암의 일생』, 21. 이후 모든 인용문은 필자가 현대어로 풀어 쓴 것이다.

28) 『동경대전』 「포덕문」, “吾亦感其言, 受其符, 書以吞服則, 潤身差病, 方乃知仙藥矣. 到此用病則, 或有差不差, 故, 莫知其端, 察其所然則, 誠之又誠, 至爲天主者, 每每有中, 不順道德者, 一一無驗, 此非受人之誠敬耶.”

29) 『청암의 일생』, 21.

보인다. 1887년 3월에 해월이 강원도 정선 갈래사(葛來寺)에 들어가 49일 기도식을 행할 때,³⁰⁾ 권병덕은 해월의 명에 따라 49일 기도식을 집안에서 설행하였다.³¹⁾ 1892년 지목의 혐의가 점차 심해지자, 해월이 도인들에게 청수를 받들어 100일 기도를 행하라고 명했을 때에는 이 명령에 충실히 따랐다. 권병덕은 매일 밤 해시(21-23시)에 목욕재계하고 청수를 받들어 정성으로 기도하였고, 음력 4월 중순에 청수기에 결빙이 한 척(尺) 남짓 생기는 이적을 경험했다.³²⁾ 이 영적(靈蹟)이 청암의 연보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³³⁾ 자기 자신에게 특기할 만한 체험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권병덕은 해월에게 성실히 지도받았던 수련의 경험을 잘 간직하였다. 1898년 6월에 해월이 교수형을 당한 이후, 권병덕은 지목을 피해 각지로 숨어다닐 때, 생계가 곤궁한 상황에서도 수련에 힘씀으로 동학에 대한 신앙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³⁴⁾

권병덕은 1913년에 순회기도(巡回祈禱)라는 또 다른 방식의 기도 수련을 실천했다. 『청암의 일생』에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권병덕이 김연국과 함께 시천교총부라는 교단에 몸담고 있었던 시기이다. 자신을 동학으로 이끌어 준 임규호가 1894년 5월에 병으로 생을 마감하자, 권병덕은 새로운 두령으로 구암 김연국을 선택하고 그를 좇아 상종하였다.³⁵⁾ 1906년 1월에 순병회가

30) 해월이 14년만에 다시 찾은 기도터였다. 수운과 해월의 종교적 산행에 대한 내용은 최종성, 「동학산행: 산으로 간 동학의 기록들」, 『종교학연구』 37 (2019): 1-37 참조.

31) 『청암의 일생』, 21-22.

32) 『청암의 일생』, 24. “2월에 해월신사께서 각지도인에게 그 집에 재소(齋所)를 이설(移設)하고, 매일밤 해시(亥時)에 청수를 봉(奉)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100일 기도케 하심으로, 청암이 매일밤 해시에 목욕재계하고 청수를 봉(奉)하더니, 4월 중순에 이르러 청수기(清水器)에 결빙이 한 척 남짓이 되는 축대(燭臺)와 같은 영적(靈蹟)이 있더니 각기 모든 도가(道家)에 이적이 많았더라.”

33) 『청암의 일생』, 11. “4월 중순에 청수기에 결빙하는 영적을 언다.”

34) 『청암의 일생』, 43. “포덕 40년(1899) 기해(己亥)에 청암의 집안 살림이 심히 곤란하여 한때는 지낼 방도가 없는지라. 10월에 집안 식솔 10여 명이 살 곳을 찾아 떠돌아 다니고, 어느 밤에 출발하여 지평군(砥平郡) 대왕대(大旺臺) 이종훈(李種勳)의 집에 가서 이웃집을 전접(奠接)하고, 돛자리를 짜서 근근히 생계(生計)하였다. 이때에 구암 선생이 방문하여 쌓인 회포를 풀고 도중의 일을 협의하였다. 이때에 청암이 밤낮으로 주문을 입에서 끊임없이 외우고, 매일 밤에 청수를 봉(奉)하고 성심 수도하였다.”(밑줄은 인용자)

일본에서 귀국하면서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고 교단을 정비할 때, 권병덕은 김연국과 함께 천도교에 동참하였으나 손병희와 김연국을 따르는 교인들 간에 융화되지 못하는 문제는 계속 남아있었다. 결국, 권병덕은 1907년 12월에 일진회를 이끌던 이용구·송병준이 세운 시천교로 김연국과 함께 들어갔다.³⁶⁾ 그러나 일진회가 해산된 이후에는 시천교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송병준과 김연국을 따르는 교인들 간 교단의 주도권을 두고 다투는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1913년 3월에 송병준이 이끄는 시천교본부와 김연국이 이끄는 시천교총부로 분립하게 된다.³⁷⁾ 김연국이 천도교에서부터 시천교총부를 세우기까지 권병덕은 동학 교단 분립의 역사를 그와 함께하였다. 권병덕은 1913년 8월과 9월에 시천교총부를 김연국을 따라 새로이 꾸러가면서, 기도 수련을 통해서 종교적인 동력을 얻기를 갈망하였을 것이다.

7월 7일에 관도사(觀道師) 권병덕이 신도사(信道師) 종위를 승수(陞受)하고, 8월에 49일 순회기도(巡回祈禱)를 설하니 오전 2시, 오후 2시는 김낙철(金洛喆)이 행하고, 오전 4시, 오후 4시는 김광덕(金光德) 부인이 행하고, 오전 6시, 오후 6시는 권병덕이 행하고, 오전 8시, 오후 8시는 이덕화(李惠嫻) 부인이 행하고, 오전 10시, 오후 10시는 박희인(朴熙寅)이 행하고, 오전 12시, 오후 12시는 유혜덕(柳惠德) 부인이 행하니...³⁸⁾ (밑줄은 인용자)

9월 8일에 시천교 종리장 대리와 대종원장 대리를 겸대하고, 7일 간 기도를 행하니 오전 1시는 구암선생이 행하고, 오전 3시에는 권병덕(權秉惠)이 행하고, 오후 7시에는 이근상(李根尙)이 행하고, 오후 9시에 송배헌(宋培憲)이 행하다.³⁹⁾ (밑줄은 인용자)

35) 『청암의 일생』, 31, 37.

36) 박정동, 『侍天教宗繹史』 제3편 10장 교무의 조직; 박정동, 「시천교종역사」,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1, 김동주 옮김 (경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3), 337.

37) 『청암의 일생』, 79. 최시형 사후, 지도자 중심으로 동학 교단이 분립되어 간 역사는 조규태, 「일제의 한국강점과 동학계열의 변화」, 『한국사연구』 114 (2001): 183-216 참조.

38) 『청암의 일생』, 79.

39) 『청암의 일생』, 81.

해월이 동학을 이끌던 시기에 행했던 기도 수련은 자기 자신이 성심을 다하는 개인 기도였다면, 시천교총부에서 행한 순회기도는 하나의 성심 수도를 완성하는 공동체 기도였다. 8월에 행한 49일 순회기도에서는 각 사람이 12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2번 기도했고, 서로 간의 간격은 2시간을 두었다. 기도 순서를 보면, 남녀가 번갈아 가며 기도하도록 각자에게 기도 시간대를 배정한 것으로 보인다.⁴⁰⁾ 각자가 채워야 하는 기도의 분량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49일 동안 끊임없이 기도 수련을 이어가는 일종의 릴레이기도를 행했다고 생각된다. 9월에는 7일 간의 순회기도를 행했는데, 이 또한 각자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여 하나의 수도를 완성하는 공동체 기도였다. 8월과 9월의 순회기도에서 배정된 기도 시간대의 간격과 기도자, 기도 기간 등이 서로 상이한 것을 보면, 상황에 따라 기도 수련의 강도를 조절하여 실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순회 교리 강연

권병덕은 동학을 신앙하는 교인으로서 주문과 기도 수련에 성심을 다하였지만, 그의 탁월한 재능은 다른 데에 있었다. 바로 교리를 설명하며 가르치는 일이었다. 그는 각 지역을 순회하며 교인들을 회집하여 교리를 설명하는 일에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청암이 진알(進諺)하니 신사께서 말하길, “윤좌(潤佐)는 경상도를 순접(巡接)하여 교인을 가르쳐 지도(教導)하라”고 하시거늘, 청암이 신택량(申澤兩)과 더불어 경상남도를 순접한 다음에 출발하니, 진주군(晉州郡) 백일화동(百日花洞) 가서 전희순(全熙淳)과 더불어 수일을 머무르며 교인 수백 명을 회집하여 교리를 설명하고, 다음날에 전희순과 더불어 각처를 순회하고, 다음날에 집현

40) 여기서 언급된 이덕화(李憲嬾) 부인은 권병덕의 둘째 부인인 전주 이씨 부인으로 추정된다. 본 자료의 세계(世系)에서도 기록하고 있고(『청암의 일생』, 9), 다음 두 가지 자료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첫째는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권병덕 관련 자료로, 이덕화가 1924년에 받은 천도교 포상장(자료번호: 1-011036-000)이며, 둘째는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1919년에 ‘權秉惠의 妻 李憲嬾’가 경성지방법원에 보낸 청원서(자료참조코드: DMI019_01_02C0004_046)이다.

산(集賢山) 홍지동(弘智洞)에서 교인 300여 명을 회집하고 교리를 설명하고, 다음날에 해남군(海南郡)으로 들어가 교인 50여 명을 회집하고 설교하고, 다음 날에 물직(勿直)이라는 해변으로 가서 교인 30여 명을 회집설교하고…41)

1896년 2월, 마로탁리(馬路坵里)로 이주한 최시형은 권병덕에게 경상도를 순회하며 교인을 지도하라고 명하였다. 이때에 권병덕이 교인을 회집하고 교리를 설명하는 일정이 답답하게 제시된다. 한번 회집하였을 때 적게는 50여 명,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는 청중들이 모였고, 그 앞에서 교리를 설교하는 일은 권병덕에게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병덕은 해월을 지근 거리에서 모시는 김연국을 두령으로 따르면서, 해월이 명한 ‘주아설위(主我設位)’와 같은 수도 방법을 해월에게 직접 듣고 배울 수 있었다. 그는 비밀리에 각처 도인들을 순회하며 수도 절차와 교리를 설명하는 일에 힘쓰기도 하였다.42)

그가 교리를 강연했던 장소 중에 죄수들이 갇혀 있는 감옥도 포함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독특한 지점이다. 1906년 순병회가 천도교의 교단을 정비할 때, 권병덕은 각지를 순회하며 교인들을 지도하고 단속하는 일을 맡았다. 권병덕은 전국을 순회하는 도중에 감옥에 들어가 죄수들에게 설교하였는데,43) 이는 포교의 목적보다는 감옥에 갇힌 교인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교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권병덕이 감옥에 들어가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친정권적이었던 일진회의 영향력에 힘입어 천도교가 대외활동을 벌일 수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당시 각지를 순회하며 교리를 강연하는 모습은 먼젓번 해월의 명으로 경상도를 순회했을 때와는 사뭇 달랐다.

41) 『청암의 일생』, 34-35.

42) 『청암의 일생』, 38.

43) 『청암의 일생』, 54. “청암이 감옥서(監獄署)에 들어가 죄수(罪囚)에게 설교하였다.” 비슷한 서술이 2번 더 등장한다. 이 기록들은 매우 간략하지만, 1906년에서만 권병덕이 전국을 순회하며 교인을 지도·단속할 때에만 언급하고 있기에 이 감옥 설교는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것처럼 보인다.

청암이 최강(崔岡)과 더불어 전라도에 내려가 다음으로 태전(太田) 등지를 순회하고, 강경포(江景浦)에 도착해서 김낙철(金洛喆), 손광수(孫光洙), 이일환(李日畹)을 만나 시장대회 가운데서 교리를 설명하고, 전주(全州)로 가서 서문 바깥 다가정(多佳亭)에서 연설회(演說會)를 설(設)하고, 권병덕은 교리를 설명하고, 최강은 교의 계관(係關)을 설명하고, 일본 헌병 대위(憲兵大尉) 정상정기(井上正記)와 일본 신사(紳士) 8·9인과 학교교사 진촌풍송(津村豊松)과 생도 70여 명과 교인 수백 명이 동락(同樂)하고…⁴⁴⁾ (밑줄은 인용자)

10월에 청암이 삼남정주순독(三南定住巡督)에 피임되어 박희인(朴熙寅), 최승우(崔承禹)와 더불어 구암선생을 모시고 예산(禮山) 교구를 시찰하고, 시장대회 가운데에서 교리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덕산(德山), 서산(瑞山), 태안군(泰安郡)을 시찰하고, 해미(海美), 결성(結城), 홍주(洪州), 공주(公州) 각군 교인의 심정을 시찰하고, 이때 공주 관찰사 김가진(金嘉鎭)을 방문하고, 경무 고문 송영방길(松永房吉)과 헌병조장(憲兵曹長) 원천(園川)을 방문하고, 교구 실 안에 연회(宴會)를 열고 내외국 관리를 초청하니 참여자는 10여 인이었다.⁴⁵⁾ (밑줄은 인용자)

권병덕은 교인들을 회집하고 설교하는 방식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도, 교인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관찰사나 치안담당 관리자들을 초청하여 교구 행사를 벌였다. 이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 연회를 즐겼다. 이는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교감을 나눔으로써 그 지역 교인들에게 종교 생활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었다. 또한 당시 수운과 해월 두 교조가 아직 신원(伸冤)되지 못한 상황에서 외부의 핍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교인들의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일이었을 것이다.⁴⁶⁾ 이처럼 권병덕은 교인들 외에 대외적인 인사들과 교류하는 일도 문제없이 해냈다. 그는 중앙에서 일할 수 있는 직책을 제안받을 정도로 정무적인 감각 또한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44) 『청암의 일생』, 55.

45) 『청암의 일생』, 58.

46) 수운과 해월 두 선사의 신원(伸冤)은 시천교의 주도로 1907년(양력) 7월 11일에 이뤄진다. 박정동, 『시천교종역사』, 312.

다.47) 천도교에서뿐만 아니라 1913년에 시천교총부에서 새롭게 교단을 세우고 교인들을 지도하며 독려할 때에도 그는 각지를 순회하며 교리 강연을 해낼 수 있는 적임자였다.48)

IV. 교인 변호와 교단 활동

『청암의 일생』에는 권병덕 스스로가 특기할 만한 사건으로 여긴 것들이 상대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그가 주목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행단리 교인 살해 사건

1908년 11월, 권병덕이 김연국을 따라 이용구·송병준이 이끌던 시천교에 들어가 활동했던 시기에 매우 처참했던 교인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 전라도 태인군(泰仁郡) 행단리(杏壇里)에서 교인 21명이 선사(先師)의 영정(影幀)을 배관(拜觀)하려고 지나가는 중에 일본 수비대병에게 의병으로 오인받고 일시에 살해당하고 만 것이다.49) 권병덕은 이 소식을 듣고 조사차 행단리로 내려갔다. 그는 행단리에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것과 동시에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역할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교인 21명을 행단리 산기슭에 안장(安葬)하면서, 유족들을 함께 위로하는 절절한 제문을 21명의 제공들에게 지어 올렸다.

47) 『청암의 일생』, 12-13. 권중연이 범부주사를, 송병준이 내부주사를 천거하였으나 권병덕은 모두 사양하였다.

48) 『청암의 일생』, 78. “포덕 54년(1913) 계축(癸丑) 1월에 청암이 옥천(沃川), 영동(永同), 황간(黃澗) 등지(等地)를 순회설교(巡回說教)하고 … 2월에 청암이 평양(平壤), 안주(安州), 개천(价川) 등지(等地)를 순회(巡回)하고…”

49) 『청암의 일생』, 64. 권병덕은 사건 발생을 11월로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0월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건의 수습은 11월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 52 참조.

아 비통하도다! … 평포 한발의 소리에 21명의 군현들이 동시에 운절하였으니 아 무슨 운명인가! 당일의 광경은 모골이 송연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 처자는 도로에서 슬피 울고, 친척은 집 뜰에서 애원하니 슬피 우는 소리와 애원하는 말에 친지는 참담하고, 일월은 무광이로다. … 아 비통하도다! 예부터 지금까지 죽은 자의 장례가 수없이 많았으되 이와 같이 행한 적은 없었도다. … 산천이 오열하고, 풍운이 참담한 심정이로구나. 제공들의 다할 수 없는 한이오, 사람들의 감히 말하기 어려운 슬픔이로다. 비록 그러하나 사람이 도를 따르다가 죽는 것은 생을 오히려 압도하는 죽음이오, 구차하게 사는 것은 죽음보다 못한 삶이니, 옳되려 빌건대 존령께서는 놀라게 마시고, 노여워 마소서. … 신체는 무덤에 안장하고, 혈족은 그 복록을 누리리니 영원무궁할 것이로다. 오 비통하도다!⁵⁰⁾

권병덕의 보고에 따르면, 상인(喪人)은 51명이고, 장례 때 회집한 교인은 5000여 명이었다. 그 밖에 내외고등관인이 20여 명이 참여했을 정도였으니, 행단리 사건은 태인군에서는 큰 이슈였을 것이다.⁵¹⁾ 『대한매일신보』에는 관련 내용이 기사화가 되어 사건의 발생 경위, 시천교인의 의금 출원 광고 등이 실렸다.⁵²⁾ 권병덕은 수비대장과 담판하여 살해된 사람들이 의병이 아니라 시천교인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하였고, 유족들에게 사과하였다. 통감부에서는 구조금을 유족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권병덕은 유족들에게 금을 받지 말고 원수를 갚아달라 주장하도록 시켜서 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결국, 당시 한국주차군 사령관이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권병덕을 만나 행단리에서 있었던 참변에 대해서 사과함으로 마무리를 지었다.⁵³⁾ 그는 각 지역의 교인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

50) 『청암의 일생』, 65-66.

51) 『청암의 일생』, 66.

52) 「시천교인피해」, 『대한매일신보』 1908.10.09; 「포살조사」, 『대한매일신보』 1908.10.20; 「광고」, 『대한매일신보』 1908.11.26. 기사에서는 사건 발생 당일을 음력 8월 16일(양력 9월 11일)로 보고하고 있지만, 관련 사건을 언급한 외교문서와 기사 발행일을 고려하면 양력 10월 7일로 추정된다. 관련 내용은 김성호, 「1908년 태인 행단에서 발생한 일진회원 관련 사건」, 『대순회보』 258 (2022.8) 참조.

53) 『청암의 일생』, 66-67.

면 변호로, 애통하는 일이 있으면 위로로, 깨달음이 필요한 상황이면 교리 설교로 상황에 맞는 역할들을 잘 수행하였다. 그는 교인들의 종교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교단의 지도자였다.

2. 김연국 석방을 위한 구명 활동

권병덕은 아래로 교인들의 종교 생활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위로도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를 헌신적으로 받들었다.

1898년 6월에 해월 최시형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자, 앞으로의 동학을 이끌 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해월의 수제자였던 김연국, 손병희, 손천민 3인 중에서 손병희에게로 단일지도체제가 확립되긴 했지만, 1900년 8-9월에 손천민이 체포 후 처형당했고, 1901년 3월에 손병희는 일본으로 외유(外遊)하였으며, 1901년 6월에 김연국이 체포되면서 지도부가 공백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다행히 겉보기에 그러하였을 뿐, 김연국과 손병희는 자신을 따르는 교인들과 내밀히 소통하며 각 지역에서 동학의 기반을 다져나갔다.⁵⁴⁾ 손병희는 이용구, 박인호 등의 지도자들과 소통하며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교인들의 기반을 다져갔다. 김연국은 권병덕의 옥바라지에 도움을 받으면서 각 지방의 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권병덕을 매개로 교인들과 소통했다.

『청암의 일생』에서는 김연국이 투옥되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⁵⁵⁾ 김연국이 투옥된 이후에 그가 석방될 수 있도록 권병덕이 노력한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김연국을 체포한 삼남사령관 이민직(李敏稷)은 임금에게 직접 상주하여 사형 처분을 받아내었고, 김연국은 꼼짝없이 사형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권병덕은 경무대신 이지용(李址鎔)을 면회하여 김연국을 구명하기 위해 힘썼고, 그 성과로 김연국은 다행히 사형을 면하고 종신형을 받게

54) 이용창, 「동학농민운동 이후 손병희의 단일지도체제 확립과정과 동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6 (2006): 105-107.

55) 김연국이 투옥된 것은 권병덕에게는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해당 시기의 원고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되었다.⁵⁶⁾ 이때부터 권병덕의 김연국 옥바라지 생활이 시작되었다.

1902년 4월 8일에 서대문 밖에 새로운 집을 정하고, 곧 아내가 될 이씨 부인의 식솔들과 함께 살면서 김연국에게 아침저녁으로 식사를 챙겨주었다. 이와 동시에 권병덕은 김연국이 종신형에서 감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평리원 관사 김정목(金正穆)에게 주선을 부탁하여 방법을 간구하였지만, 법부(法部) 관리의 반대로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그 밖에 감옥서장 김영선(金英善)과의 교섭을 통해서 김연국과 그의 식솔들 간의 면회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돈의동(敦義洞)에 구암의 식솔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마련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김연국이 본가를 내왕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당시 구암의 5세의 아들의 얼굴을 매일 한번씩 볼 수 있었다.⁵⁷⁾ 이처럼 권병덕이 다방면으로 노력한 덕분에 김연국의 옥중생활은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상태의 고립된 생활은 아니었던 것이다. 김연국을 따랐던 교인들은 권병덕을 매개로 김연국과 소통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다.⁵⁸⁾

1904년에 평리원 재판장으로 민병한(閔丙漢)이 되자, 다시금 교섭하여 김연국은 10월에 석방 선고를 받았다. 법무대신 김가진(金嘉鎭)의 반대로 다시 투옥되는 일이 있었지만, 법무대신이 권중현(權重顯)으로 바뀌면서 권중현의 주선으로 결국 12월에 석방될 수 있었다.⁵⁹⁾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권병덕이 김연국에게 보여준 헌신은 둘 사이에 끊어지기 힘든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1915년까지 김연국과 동행했던 권병덕의 행적은 남도교인과 서도교인 사이의 대분규(大紛糾)로 인해 갈리게 된다.

3. 남도교인과 서도교인 간의 대분규

1913년 3월, 권병덕은 김연국을 좇아 송병준이 이끄는 시천교본부와 분립하

56) 『청암의 일생』, 44.

57) 『청암의 일생』, 44-46.

58) 『청암의 일생』, 46. 김연국이 투옥되었을 때, 권병덕을 찾아와 은밀히 상종한 교인들의 명단을 전하고 있다.

59) 『청암의 일생』, 47-48.

면서, 김연국이 이끄는 시천교총부에서 교단을 재정비하는 데에 힘썼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권병덕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교인을 회집하여 교리를 설명하고, 49일, 7일 간의 순회기도에 동참하며 성심으로 수도하였다. 교단 운영에 있어서도 시천교총부의 종리장, 전제관장, 중학관장 등을 역임하며 핵심 인물로서 활동했다. 1913년에는 『무극보』, 1914년에는 『구악종보』라는 교단 잡지 발간에 힘을 보탰고, 김연국이 초고를 쓴 『시의경교』 또한 간행했다.⁶⁰⁾ 그러나 1915년에 권병덕이 속한 남도교인과 서도교인 간의 갈등이 분출되며 어긋나기 시작했다.

권병덕은 시천교총부와 분립하는 과정과 이후 중앙시천교회본부에서 활동했던 1년 5개월 간의 기록들을 원고지 60여 장이 되는 분량으로 정리하고 있다.⁶¹⁾ 그만큼 중앙시천교회본부를 이끌었던 지도자로서 남겼던 자료들과 기록해야 할 얘기들이 많았을 것이다. 권병덕이 바라보는 당시 분쟁의 가장 큰 요인은 김연국의 우유부단함이었다. 시천교총부 전반을 운영하는 김연국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서도교인의 말에 따르니 교무를 잘못하는 것이 많다고 진단했다. 갈등의 도화선에 불이 붙은 것은 김연국이 종리장에서 권병덕을 해임하고, 변방기(邊方基)를 종리장에 임명할 때부터였다. 이를 통해 경성에 있는 몇 교인과 서도교인들이 교종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남도교인들을 배제하자, 이근상(李根尙), 송배헌(宋培憲) 두 남도두령들이 김연국에게 부당함을 강하게 직언했다.

김연국은 다시금 교무의 전반을 김낙철에게 맡기고, 종리장은 권병덕으로 복임시켰다. 그러나 다시금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서도교인들이 김연국을 찾아가 그가 내렸던 종훈(宗訓)들을 환수하도록 했다. 권병덕은 김낙정(金洛貞), 강소영(康昭榮) 두 사람이 김연국에게 야침하여 ‘이근상, 송배헌에게 벌을 내리라’는 김연국의 명이 반포되게 하였고, 이로써 남도교인들을 현혹시켰다고 보았다. 권병덕은 남도교인 두령들과 함께 이 사태에 대해 반발하였고, 3월 9일에 회합하여 시천교총부를 정리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경성부 연동(鍊洞)

60) 『청암의 일생』, 81-82.

61) 『청암의 일생』, 82-155.

에 정리사무소(整理事務所)를 새로 설치하였다.⁶²⁾ 회합하는 공간이 두 장소로 나뉘는 순간, 분출된 갈등은 봉합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정리사무소에서 결의한 5가지 항목⁶³⁾은 다음과 같다.

- | | | |
|-----------|-------------|-------------|
| 1. 교헌 개정 | 2. 불법 교령 처벌 | 3. 총부 재정 조사 |
| 4. 간세배 축출 | 5. 총부 신조직 | |

5가지 결의안을 통해 남도교인과 서도교인 간의 반목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재정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보는 문제의식과 신앙심이 없이 위장으로 입도한 교인들이 많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조직을 언급한 마지막 항목은 결국 남도교인들이 새로운 교단으로 분립할 상황까지 각오하였음을 보여준다.

남도교인들은 5가지 정리 사항을 의결하고, 그 다음날인 3월 10일 제세주수형기념일에 연동의 정리사무소에서 기도식을 거행하고, 각처에 현 상황을 알리는 윤고문을 발송했다.⁶⁴⁾ 대교주 김연국은 끝까지 서도교인들의 편에 섰고, 3월 15일에 정리사무소 측에서 보낸 사무정리위원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⁶⁵⁾ 이후 남도교인들은 지방 각처에 여러 편의 윤고문을 보내 교인들에게 더욱 호소하였다.⁶⁶⁾ 시천교총부에서 권병덕, 이근상, 송배헌 3인을 교안에서 제명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4월 5일 제세주승통기념예식 때에 각 지방에서 여러 교인들이 상경하여 남도교인들에게 힘을 신고자 시천교총부를 방문하였다.⁶⁷⁾ 그

62) 『청암의 일생』, 120.

63) 『청암의 일생』, 121.

64) 『청암의 일생』, 82-87, 121.

65) 『청암의 일생』, 87.

66) 『청암의 일생』, 87-99. 윤고문에서는 8조목을 들어 당시의 상황을 비판했다. 1. 서도 교령이 아첨하여 교권을 휘두르는 것. 2. 간세배가 탐입하여 어리석도록 속이는 것. 3. 사사로이 취하고 공적인 것을 버려 일들을 호도하는 것. 4. 위압으로 권세를 부려 압박하여 무고하다 한 것. 5. 어진 사람을 내치고 교령을 불신하는 것. 6. 행동이 수상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만드는 것. 7. 명령이 항상치 않고, 조변석개하는 것. 8. 남도를 모멸하고 하찮은 사물을 보듯이 하는 것.

67) 『청암의 일생』, 102, 114.

러나 사태가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권병덕과 뜻을 같이하는 교인들은 연동의 사무소에 모여 ‘중앙시천교회’의 간판을 걸며 새로운 교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길로 들어섰다.⁶⁸⁾

V. 나가며

권병덕은 1916년 8월에 의암이 이끄는 천도교로 다시 돌아갔다.⁶⁹⁾ 김연국을 따랐듯이 손병희를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손병희를 따라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 서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1920년대에 그는 천도교를 떠나 수운교와 상제교를 전전하며 이전과 ‘다른’ 동학을 경험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결국은 천도교를 종교 생활의 종착지로 삼았다. 그는 『청암의 일생』을 집필하면서 1920년대에 천도교를 떠난 이후의 종교 생활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생 동안 성심을 다했던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을 그에게서 보노라면, 어느 교단에 몸담고 있었는지 간에, 자신의 종교 생활에는 늘 진중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본고에서는 『청암의 일생』을 소개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여, 해당 자료의 내용 구조와 특징을 정리하였다.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는 권병덕의 종교 생활과 행적에 주목하였다. 『청암의 일생』에는 일생 동안 권병덕에게 붙여진 자(字)와 호(號)가 등장한다. 한평생 동학을 신앙했던 종교인의 모습이 권병덕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를 명명하였던 자와 호는, 결국 동학을 편력했던 권병덕의 삶의 흔적이다. 해월 시대에 동학을 신앙할 때는 ‘윤좌(潤佐)’로 불렸고⁷⁰⁾, 김연국을 좇을 때는 ‘정암(貞菴)’⁷¹⁾이라는 도호를, 자신이 교단을 새로이 운영코자 했을 때는 ‘우운(又雲)’⁷²⁾이라

68) 시천교총부와 중앙시천교회본부 교단의 조직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김정인, 「대한제국기·일제강점기 시천교의 존재양태와 활동」, 『국사관논총』 103 (2003): 13-18 참조.

69) 『청암의 일생』, 155-156.

70) 『청암의 일생』, 34-36.

71) 『청암의 일생』, 53. 1905년 김연국에게 받았다.

는 도호를, 다시 천도교로 가서 손병희를 따를 때는 ‘청암(淸菴)’⁷³⁾이라는 도호를 받았다. 『청암의 일생』이라는 제목처럼 권병덕 자신의 신앙의 종착점은 천도교였다. 권병덕을 기억하기에는 ‘천도교인’, ‘독립운동가’라는 수식어가 여전히 유의미하겠지만, 일평생 동안 구도자의 모습으로 종교 생활에 성심을 다했던 그를 기억하기에는 ‘동학 편력자’라는 수식어가 그 무엇보다 알맞을 것이다.

주제어: 권병덕, 청암의 일생, 편력자, 행단리, 김연국, 중앙시천교회

| |
|--|
| 투 고 일: 2022. 11. 02. 심사종료일: 2022. 11. 22. 게재확정일: 2022. 11. 28. |
|--|

72) 『청암의 일생』, 134. 1915년 ‘菴’자 대신에 ‘雲’자 도호를 일반교도 중에 중요한 사람에게 주었다.

73) 『청암의 일생』, 159. 1917년 손병희에게 받았다.

참고문헌

- 『대한매일신보』
- 『동경대전』
- 『매일신보』
- 『중앙시천교회중보』
- 『천도교회월보』
- 『청암의 일생』
- 『한글관전산대동세보2021』
- 박정동. 『시천교종역사』. 경성: 시천교본부, 1915.
- 박정동. 「시천교종역사」.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1, 김동주 옮김, 196-350. 경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3.
- 김성호. 「1908년 태인 행단에서 발생한 일진회원 관련 사건」. 『대순회보』 258 (2022. 8). http://webzine.daesoon.org/board/index.asp?webzine=302&menu_no=5092&bno=9427&page=1.
- 김정인.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시천교의 존재양태와 활동」. 『국사관논총』 103 (2003): 1-28.
- 김홍철. 『한국신종교대사전』.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6.
- 수운교 교리연구원 편. 『수운교 진리』. 대전: 수운교출판부, 1999.
- 오재식. 『민족대표33인전』. 서울: 동방문화사, 1959.
- 이동초. 『동학 천도교 인명사전』.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9.
- 이병헌. 『3·1운동비사』. 서울: 개벽사, 1959.
- 이용창. 「동학농민운동 이후 순병회의 단일지도체제 확립과정과 동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6 (2006): 83-121.
- 정운현. 『3·1혁명을 이끈 민족대표 33인』. 파주: 역사인, 2019.
- 조규태. 「일제의 한국강점과 東學系列의 변화」. 『한국사연구』 114 (2001): 183-216.
- _____. 「동학계 신종교 상제교의 종교적 특성과 민족적 성격」. 『소통과 인문학』 11 (2010): 99-120.
- 최종성. 『동학의 테오프락시』. 서울: 민속원, 2009.

_____. 「동학산행: 산으로 간 동학의 기록들」. 『종교학연구』 37 (2019): 1-37.
한국사상연구회 편저. 「淸菴權秉憲先生自敘傳」. 『한국사상』 15 (1977): 315-409.

박결순. 「충북 독립운동가 열전 - 권병덕」. 『충북일보』 2015.03.29.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390026>.

조규태. 「이달의 독립운동가 - 권병덕」. 공훈전자자료관 2017.03. <https://e-gonghun.mpva.go.kr/user/IndepCrusaderDetail.do?goTocode=20003&mngNo=222>.

Abstract

The Religious Life and Activities of Kwon Byeong-deok, an Experienced Eastern Learning Believer: Focusing on *The Life of Cheong-am*

Lee, Won Sub (Seoul National Univ.)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the biographical writing of Kwon Byeong-deok (權秉惠), *The Life of Cheong-am* (淸菴의一生). Additionally, it organizes the content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is text and describes his religious life and activities. *The Life of Cheong-am* is divided into three parts—Kwon Byung-deok’s family lineage, chronology, and biography. It records the daily history related to his family and livelihood, religious life, and the history of the Eastern Learning orders that he experienced. Specifically, it records his recitation of incantations, prayer training practice, and his lectures on doctrines for community members while traveling across regions as an itinerant lecturer (Sundok 巡督) in the Eastern Learning order. In his perspective, the history of the Eastern Learning orders includes the details of his service to the imprisoned Kim Yeon-guk (金演局), the process of handling the murder of believers in Haengdan-ri (杏壇里), and the process of splitting into the Jungang-sicheon-gyohoe (中央侍天教會). In conclusion, this article draws attention not only to the fragmentary appearance of Kwon Byeong-deok, who was active as a “Cheondogyo (天道教) believer” and an “independence activist,” but also as a “wanderer in Eastern Learning” who believed in Eastern Learning without being tied to a religious order.

Keywords: Kwon Byeong-deok (1868-1943), *The Life of Cheong-am*, experienced believer, Haengdan-ri, Kim Yeon-guk, Jungang-sicheon-gyohoe